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1월 25일(주일) 제1222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헌신



임직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2018 임직예배 ... 리더십 510명 세워져 명예권사 4명, 권사 182명, 안수집사 324명

온누리교회 리더십 510명이 세워졌다. 어제(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2018 임직예배'에서 권사 186명(명예권사 4명, 권사 182명), 안수집사 324명(남자 121명, 여자 203명)이 임직됐다.

2018 임직예배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이철 장로 대표기도, CGNTV세라핌합창단 특송,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2부는 임

직자 서약, 안수기도, 선포, 정과중 장로의 권면, 임직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순영 집사(중종로공동체)가 여자 안수집사, 김원영 집사(강남B공동체)가 남자 안수집사, 이양숙 권사(대전)가 권사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리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우리 모두는 오후 5시 포도원에 온 일꾼"이라며 "우리의 업적, 공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임직자 황현주 집사(양재공동체)는 "광장이 떨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조성준 집사(강촌공동체)는 "겸손함으로 교회

와 사역, 성도들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지원 권사(강남C공동체)는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직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교회 직분을 받은 임직자 510명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진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개인영성훈련(성경통독, 새벽기도, 독서보고서, 큐티말씀묵상, 봉사활동)도 이수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 절약 캠페인 2

전기 사용량을 줄이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절약을 통한 생명과 환경을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자'다.

온누리교회에서 발생하는 전력낭비가 너무 많다. 전력낭비 문제만 해소해도 환경을 살리고, 교회 재정도 절약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임의 리더십들은 그 모임이 끝나면 전기를 반드시 소등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를 뽑아두고, 실내 난방 적정 온도는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추우면 내복 입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오늘부터 '엔젤트리' 시작!

6주 동안 사연 2,990개 게시

오늘(25일)부터 2018 엔젤트리가 시작된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와 목회지원실에 사연 2,990(11월 24일 기준)개가 게시된다.

2018 엔젤트리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면 로비에 설치된 사연게시판에서 사연을 뽑으면 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는 성인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사연게시판에 새로운 사연을 게시한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교회와 성

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 엔젤트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후원을 100%를 달성했다. 올해도 후원을 100% 달성에 도전한다.

문의: 02-3215-3434

피택장로 명단

강경국	김영관	윤석주
강은철	김정훈	이우경
강창재	나광욱	이학일
곽희준	남주언	임상범
구본영	노하수	장문석
권순형	박재두	정응화
금세종	백종신	조성수
김경돈	백종욱	최용재
김기섭	신철우	최호림
김민찬	안상현	하주현
김성철	오명	한복규
김신원	오범규	허영환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보고 싶었다. 꼭 한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 기대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배상민 교수(KAIST 산업디자인학과, 대전 온누리교회)는 참으로 자유롭고 독특하면서 정말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파마머리와 개량 한복바지, 큰 눈과 시원시원한 말투가 참으로 자유롭고 독특했다. 그의 디자인 철학에는 진실함과 따뜻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 출신으로 카이스트에서 후학 양성과 나눔 디자인을 실현하고 있는 배상민 교수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3D(꿈, 디자인, 나눔) 디자이너 ‘배상민 교수’

선한 소비, 나눔 문화 창출하는 예쁜 디자인 제품 제작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에서 나눔 디자이너로 기부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배상민 교수.

배상민 교수는 이력이 참으로 화려하다.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작품 1등, IDSA(미국산업디자인협회) 학생 디자인대회 우승, 세계 최고 디자인 회사 ‘스마트 디자인’ 특채 입사,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최초이자 최연소 동양인 교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세계적 기업(코카콜라, 골드만삭스, P&G, 3M 등)을 고객으로 둔 자타공인 최고의 디자이너... 그런 그가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뉴욕에서 받던 연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카이스트에 등지를 틀었다. 그것도 디자인과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카이스트에 ‘ID+IM 연구소’를 차렸다. ID+IM 연구소는 3D(Dream 꿈, Design 디자인, Donate 나눔)를 철학으로 삼고 있는 디자인 연구소다. 배상민 교수는 자기 소개도 참 독특했다.

“나는 꿈꾼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 Design therefore I Am)

나는 기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 Donate therefore I Am)”

배상민 교수는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공헌이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화려한 뉴욕 생활과 경력을 뒤로 하고 한국에 온 이유와 목적도 그것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배상민 교수는 모태신앙인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특히 외가 쪽이 원칙주의적이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침마다 가족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새벽부터 교회에 갔어요. 성가대 하고, 애들 돌보고, 밥 먹이는 봉사를 했어요. 주일에는 TV를 보면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걸어갔을 정도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배 교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유학생 시절이었다.

“뉴욕에 가니까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모르고, 저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무지(無知)에 대한 공포랄까? 모르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상담을 해야겠는데 저에게 그 대상은 예수님이었어요. 매순간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다보니 자연스레 신앙이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배 교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 진리가 자유분방하고 쾌락과 탈선이 난무한 뉴욕생활에서 자신을 붙잡아 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참으로 자유로워요. 디

자이너는 자유로워야 할 수 있는 직업이고요. 아티스트들은 ‘누가 더 미치게 자유롭나’라고 말할 정도로 순수함과 틀을 벗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을 쫓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해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디자인이요.”

자유롭고 싶었다.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갈망했다.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더니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왔다. 시행착오와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토록 원하던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으니 정말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허무하고 허탈했다.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다.

“제가 디자인한 상품들이 백화점에 진열되고, 많은 이들이 저를 알아주면 행복하고 뿌듯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디자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베푸는 것인데 쾌락과 소비에 대한 욕구만 불러일으키는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그즈음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3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다. 독일, 일본, 뉴욕, 한국행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카이스트는 단연컨대 안중에도 없었다. 연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세 군데에 비해 대우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관과 감성을 중시하는 디자이너와 상극인 이성과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컸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카이스트를 선택한 게 제 인생 첫 번째 기도응답이었어요. ‘카이스트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연봉도 적고, 뉴욕에서 쌓은 경력이 전혀 적용이 안 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불만이 없었어요.”

그렇게 배상민 교수는 14년 동안의 뉴욕생활을 접고 2005년 카이스트에 왔다.

카이스트에 온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월드비전 한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눔을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였다.

“이거다!”

그가 3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해온 꿈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다. 배 교수와 ID+IM 연구소는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선한 소비와 나눔(수익금 전액 기부)으로 이어지는 예쁜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접이식 MP3플레이어 ‘크로스큐브’, 친환경 가슴기 러브팻(전기를 쓰지 않고 화분에 물만 채워줘도 티슈볼이 물을 흡수 증발시켜 적정습도를 유지), 스탠드 조명 달라이트(자유자재로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고, 모양에 따라 밝기 조절 가능한 스탠드) 등을 만들었다.

기능과 외적 아름다움, 거기다 나눔까지 더해진 신박한 제품들은 세계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제품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했다. 세계 4대 디자인상(IDEA, iF, 레드닷디자인 어워드,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무려 50여 차례나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특히 크로스큐브는 애플의 아이팟을 제치고 IDEA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애플을 이긴 바로 그 디자인이 되었다.

우리는 상위 10%, 복음에 빛진 자

배 교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시드 프로젝트(SEED PROJECT)’도 진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를 소리로 쫓는 ‘사운드 스프레이’, 언제 어디서나 최소 비용으로 손쉽게 정수할 수 있는 ‘바텀업(Bottom-up)’ 등 제3세계 사람들에게 적정기술을 통해 쉽고 지속가능한 도움을 주고 있다. 아름답기만 한 디자인,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 쾌락주의로 이끄는 디자인이 아니라 선한 소비와 나눔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의 기준은 하루에 1만 원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1만 원 이상, 어떤 때는 몇 십만 원 이상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하루에 1만 원을 쓰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나눔 프로젝트 제품

<http://nanumproject.com>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기도 없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중보기도’라 부릅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역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나 자신, 다른 영혼을 품지 못하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축복, 영광을 많이 나타내시는 때는 중보기도자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사탄의 왕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중보기도의 모범 ‘모세’

구약에서 중보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준 인물이 지도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들고 서 있기 어려워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들었던 손은 바로 중보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보이는 물리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싸움의 승패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손을 높이 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손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자”(애 3:40~41).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시

28:2).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의 손은 하나님 보좌에까지 닿는 중보기도의 손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든 손이 하나님 보좌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에서도 모세는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범 죄한 이들을 벌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데 누가 반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11~13절).

모세는 대담하게 하나님께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진노를 돌이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며 돌이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운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민족이 이곳에서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할 때 일본을 따르고,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역사적 앙금이 있고,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그 민족을 우리가 변화시킴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출 32:14).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진멸하셨어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하셨으며, 모세가 반대하자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백성들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한 사람과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 받을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개와 중보기도를 통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무너진 틈이 많습니다.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에 무너진 틈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틈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비판을 하고, 데모를 하고, 정죄를 하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변화는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간에 주고받은 편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로 도왔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놀라운 영적 변화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중보기도의 지경을 넓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약 중보기도의 모범 ‘바울’

신약에 와서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기도로 협력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롬 15:30).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고후 1:11).

바울은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언제나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 없이 세우시기를 빕니다”(살전 3:9~13).

(13면에 계속)

기획 크리스천의 직업윤리

직업윤리와 사명은 하나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크리스천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21세기, 직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데 직업윤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다. 직업윤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규범을 총칭한다. 모두가 직업윤리를 지킬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크리스천들에게 직업윤리는 사명과 같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기독교는 예로부터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임하는 소명의식을 강조해 왔다. 칼뱅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는 장인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다. 장인정신은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직업윤리는 직무활동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요즘 직업윤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 세계 180개국 중에서 5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에 해당되는 순위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청렴과 투명성 등이 낮아도 너무 낮다.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업윤리 부재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국내 모세탁기 모터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한 연구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10년 동안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품을 만들었는데 고작 현금 1억 6천만 원과 주택, 차량을 받고 이를 넘긴 것이다. 돈과 재물에 눈이 멀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직업윤리, 사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 행위도 포함

직업윤리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한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 11월 김 모씨는 어느 안과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해냈다.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 갔다가 의사로부터 “백내장이 발병한지 한참 되어서 두 눈 모두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씨는 “오른쪽 눈은 이미 각막 혼탁으로 시력이 거의 상실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오른쪽 눈만 수술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그 의사는 두 눈 모두 수술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 씨가 그 의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김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냥 두 눈을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김 씨는 근처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동일했다. 김 씨는 두 눈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이유를



크리스천들은 직업윤리에 소명의식을 더해야 한다.

물었다. 그 의사는 “나중에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렇게 쉽게 답을 들을 수 있는데 야까 그 병원에서는 왜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당시 환자가 많아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도 아니었고, 김 씨가 불손한 태도로 물어본 것도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디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 한 둘일까? 모두 직업의식 부재가 부른 현상이다.

우리 사회에는 건강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크리스천들은 더욱 그렇다.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직업윤리는 세상의 직업윤리와 조금은 다르다. 크리스천들은 직업윤리에 소명의식이 더해져야 한다.

직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보케이션(Vocation)’은 ‘vocare(부르다)’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됐다. 이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는 ‘콜링(Calling)’은 ‘소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조차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어 우려된다.

한국기독교학생회(IVF)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평신도들의 소명의식’을 주제로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설문조사했는데 응답자 23.3%만이 직업 선택의 기준을 ‘소명’이라고 응답했다. 69.1%는 연봉이나 적성, 통근거리 등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했다고 했다. 크리스천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나 적성, 통근거리를 고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소명의식이 결여된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현재 종사하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67%, ‘그렇지 않다’가 31.3%로 집계됐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이라고 답변한 438명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더니 69.6%가 “일정기간이 흘러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에 대한 소명

을 확인한 방법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51.3%가 ‘기도를 통해서’라고 응답했다.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소명을 발견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직업윤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직업윤리를 지키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다.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김국종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중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상환자들의 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권역외상센터가 세워졌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국종 교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국종 교수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외상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직업에 대한 소명 때문이다.

두 번째 주인공은 2009년 군납 비리 사건을 폭로했다가 군복을 벗었던 김영수 국방권의 연구소장이다. 김영수 소장은 2006년 계룡대(육군, 해군, 공군 통합기지) 근무지원단에 부임했다. 그는 군수품과 예산을 담당했던 간부들이 사무용품과 전자제품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군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번번이 기각됐다. 당시 국가청렴위원회(현 권익위)도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김 소장은 2009년 10월 MBC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서 비리를 고발했다. 방송이 나간 뒤 국방부는 사건을 재수사해서 비리 군인 31명을 형사처벌했다. 이 문제 또한 깨운 하게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김영수 소장의 직업윤리와 사명은 어둠을 밝혔다.

소명은 특별한 게 아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고전 10:31).

전문가 기고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직업의식과 그 중요성



정운오 장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크리스천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기고에서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직업의식과 그 중요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업윤리를 직장 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성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크리스천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직업윤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직장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크리스천들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혹 직업을 재물을 얻고 명예를 누리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자아성취를 통해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의(Righteousness), 평강(Peace), 기쁨(Joy)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은 오직 신부와 수도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오직 ‘성직’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직업들은 천박하고 속되며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일로 치부되었다. 그래서 중세 독일에서는 이런 직업들을 ‘아르바이트(Arbeit)’라고 지칭했다. 아르바이트의 어원은 오늘날 아르바이트와 그 의미가 다르다. 아르바이트의 중세 독일어는 ‘고된 일’, ‘꾸역꾸역 하는 일’, ‘고통을 안겨주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직업에 대한 이원론적인 생각은 종교개혁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종교개혁은 중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소젖을 짜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바로 소명이다”라고 말했다.

종교개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목수, 구두제화공, 제빵사, 도자기공예공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직이 생겨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사람들은 점차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면서 직업을 자신의 성으로까지 사용하게 된다. 가령 대장장이는 스미스(Smith), 옷을 만드는 사람은 테일러(Tailor), 구두공은 슈메이커(Shoemaker) 등이 있다. 그리하여 유럽사회는 크게 발전하게 된다. 18세에 시작된 산업혁명도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창세기에 ‘문화명령’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을 ‘일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일을 할 때 삶의 만족을 느끼고 인생을 보람차

협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불의한 일들이 직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앞장서서 막아야 하며 내가 막을 힘이 없다면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평강(Peace)’이다. 우리는 직장 동료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 12:17-18).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작은 도움과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기쁨(Joy)’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직장을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곳, 일할 만한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나친 일 중심, 성과중심의 직장에서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게 되어 기쁨 대신 스트레스가 지배하

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았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마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눅 3:12-14).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특히, 직장에서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팀 켈러 목사가 쓴 <일과 영성>에서는 일을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식당종업원이 일을 잘 하게 되면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이 빨리 준비되어 손님들이 행복해한다. 하지만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은데 종업원이 일을 느릿느릿 한다면 손님들은 매우 불쾌해할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도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덕목이다.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성경 속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느헤미야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책임자로 임명됐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직장 안에서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전직 총리는 백성들로부터 음식과 재물을 받았다. 음식과 재물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관행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관행을 거부했다. 많은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었는데 귀족들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린 백성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결국 자신의 토지와 자녀들을 귀족들로부터 빼앗기게 된다.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불러 꾸짖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도록 촉구한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의 총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했다. 다윗은 밋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밋세바와 하룻밤을 보내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교활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우리아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전쟁터에 나가 끝까지 싸운다. 그는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일터에서만큼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는 주어진 소명에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일과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다 마친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 했구나”라고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직업은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는 도구이고, 직업윤리 실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게 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은 교회의 사역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업윤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제3차 로잔회의에서 발표된 케이프타운 선언문에는 성도(교회)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선언하고 있다. 첫째,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참여를 통해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는 일이다. 이 두 번째 사명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사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크리스천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참여를 실현하므로, 직업은 죄로 인해 망가진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롬 14:17).

첫 번째 기준은 ‘의(Righteousness)’이다. 크리스천들은 직장 안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혹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왕따 문제가 있는지, 또는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고 대인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한 나머지 납품회사나 유통업자의 생존을 위

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낸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제트블루라는 저가항공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회사의 핵심가치(core value) 중 하나로서 ‘즐거움(fun)’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이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회사의 성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느헤미야와 우리아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직업을 통해 돈이 생기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다보면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돼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도 한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눅 3:11).

세리들과 군인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배추 속에 버무려진 예수님 사랑

부천 한사랑공동체 탈북민 위해 김장하던 날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는 매년 김장을 한다. 사랑과 정성으로 김치를 담아 이웃에 사는 탈북민들에게 전달한다.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선물한다.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사랑공동체 성도들은 배추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버무렸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는 김장김치에 예수님 사랑을 듬뿍 담아 탈북민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예로부터 김장하는 날은 잔칫날이었다. 마당에 모여 할머니와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면 아버지는 한쪽에서 수육을 삶았다. 새벽같이 시작한 김장은 해가 질 무렵 끝이 났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매년 김장이 끝나면 삭신이 쭉 시다며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아무리 고되도 자식들 먹일 김치를 한가득 담아두면 그 쯤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고 싶어서 자식들이 아무리 김장 좀 줄이자 해도 결코 그럴 수 없다. 김장은 한민족 고유의 행사다. 김장을 통해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는 벌써 7년째 직접 김장을 해서 탈북민들과 나누고 있다. 아낌없이 전해진 김장김치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

“올해는 배추김치 180포기를 담가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재료들만 골라서 샀고요.”

김혜경 목사(부천 한사랑공동체)는 한사랑공동체가 매년 탈북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김장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좋은 재료는 기본이고, 성도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버무렸기 때문이다.

올해 부천 온누리교회 김장은 11월 22일 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식당에 도착했더니 벌써 김치숙과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미 성도 20여 명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배추 속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년차 베테랑 주부부터 새댁까지 탈북민들

에게 가장 맛있는 김치를 선물하겠다는 마음으로 푹푹 무쳐 있었다. 한사랑공동체가 담근 김장김치는 부천시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 50가정에 전달된다. 한 가정 당 배추김치 두세포기를 나눠준다. 넉넉하게 한두 사람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양은 된다.

7년째 이어온 김장김치 나눔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가 김장김치를 이웃들과 나누는 행사는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2012년부터 김장을 했다.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한 성도들이 교회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길 방법을 고민하다 김장김치를 떠올렸다. 김장김치를 맛본 탈북민들이 그 사랑과 정성에 감동 받고 교회에 나왔고 한사랑공동체가 시작됐다. 심은자 성도는 첫 번째 김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참하고 있다.

“7년 동안이나 할 줄 몰랐어요. 사실 김장이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겨울이 가까워지면 탈북민들이 생각나서 김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장김치를 받고 너무 좋아하는 탈북민들을 보면 그만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거든요.”

탈북민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김치는 정말 특별하다. 집에서 하는 김장보다 신경을 몇 배는 더 쓰고 있다. 재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사고, 정성과 사랑도 더 듬뿍 담는다. 한사랑공동체가 담근 김치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 웬만한 김치는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온누리교회

김치가 제일 맛있었다”고 소문이 났다. 탈북민 청년들이 전도대상자에게 선물하겠다고 김치 좀 챙겨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다.

한사랑공동체가 김장을 처음 할 때만 해도 10여 명 정도가 일손을 거들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날도 성도 30여 명 정도가 김장을 함께 했다. 전해경 성도는 지난해부터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교회 식구들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탈북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일손을 보태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탈북민들과 교제할 일이 없었는데 김장을 하면서 탈북민들과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좋은 일을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집에서 김장하면 몸살이 나는데 교회에서 김장하면 몸살이 안나요(웃음).”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김장 솜씨도 빼어나다. 배추 자르고, 절이고, 버무리고, 포장해서 상자에 담은 일까지 전문가가 따로 없다.

그렇게 맛있는 김치의 비결

작년부터는 탈북민 성도들도 김장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탈북민 성도 4명이 함께 했다. 김에스터(가명)와 손은혜(가명) 성도는 2012년 한사랑공동체 김장김치를 맛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에 있을 때도 찬바람이 불면 김치를 많이 담갔어요. 배추를 한 트럭씩 실어다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했어요. 그날은 동네 잔칫날이었어요.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부자들이나 김장을 했지만 그때 기억이 잊히지 않았

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다 같이 김장을 하니 그때 생각이 간절하게 나더라고요.”

두 성도는 한사랑공동체 김장에 직접 동참해 보니 김치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 비결을 알 수 있었다.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껏 김치를 담그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과 정성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올해만 김장 봉사를 네 군데 다녔는데 부천 온누리교회만큼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은 곳은 처음이었어요.”

엄신실(가명) 자매에게 한사랑공동체가 준 김장김치는 고향 그 자체다. 분명 재료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른데 고향에서 먹던 그 맛과 똑 같다. 그 비결도 역시 한사랑공동체 성도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정성이다.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예요. 남한에 와서 여러 군데에서 김치를 먹어 봤는데 이렇게 고향 생각나는 김치는 처음이에요. 너무 아까워서 명절같이 귀한 날에만 꺼내 먹고 있어요.”

김에스터 성도도 한사랑공동체의 김치 맛에 푹 빠져 있다. 남한 생활에 막 적응해 나갈 무렵 한사랑공동체 성도들이 나눠준 김치를 맛봤는데 김치 맛이 보통이 아니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먹었던 김치 중에서 맛도 제일 좋았고요. 올해는 저도 함께 김장을 하고 싶었어요. 탈북민들이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교회에도 나와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김에스터 성도는 다른 탈북민들을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부터 일하는 솜씨까지 최고라는 칭찬이 자자하다. 김에스터 성도는 그 모든 칭찬의 원동력이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 김장김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저도 받은 사랑을 꼭 나누고 싶어요.”

또 한 번 비상을 꿈꾼다

부천 한사랑공동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탈북민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정성껏 섬기는 공동체로 자리잡고 있다.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탈북민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남한 생활 적응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김혜경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다”고 고백했다.

한사랑공동체는 또 한 번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내년 부활절에 일본 해외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탈북민 성도들은 벌써부터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달 꼬박 꼬박 적금을 들고 있다. 김혜경 목사는 한사랑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후원: 415-910554-40007 하나은행
문의: 032-322-9686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제1회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 개최

“우리가 평생 부를 노래 제목은 예수님!”

지난 11일 제1회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 ‘One Voice’가 막 올랐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찬양으로 하나 되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감격이자 감동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였다. 세상 돌도 없는 천국잔치가 벌어진 그 현장에 다녀왔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사 43:21).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개최한 순찬양축제 ‘One Voice’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순찬양축제는 경쟁을 위한 대회가 아니다. 노래솜씨를 자랑하려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잔치다.

지친 영혼들을 위한 비타민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순찬양축제를 준비했다. 순찬양축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연습 중인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후 5시, 드디어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 One Voice가 막 올랐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중요하듯이 첫 공연 주인공에게 시선이 쏠렸다.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요셉 4순이었다. 요셉 4순은 ‘하나님의 느낌’이라는 찬양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찬양 ‘하나님의 느낌’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셉 4순 성도들은 찬양 가사에 맞춰 나무, 물고기, 새 모양 머리띠를 하고 힘껏 찬

양했다. 요셉 4순의 무대는 관객들이 감동받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다른 순들의 공연도 감동적이었다. 가슴 벅찬 공연이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특히 신명기 3순 순원들이 준비한 찬양 ‘내 모습 이대로’는 관객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선사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는데 마치 천상에서 찬양하는 천사들 같았다.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웃음과 목소리는 지친 영혼들을 위한 비타민이 따로 없었다. 강동 온누리교회 순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 One Voice에는 풍성한 이야기보따리도 있었다. 참석자 모두가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맛봤기 때문이다.

이야기보따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강동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이하 파워웨이브)다. 파워웨이브는 ‘EGG’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 순찬양축제에 참가했다. EGG는 “Every day Glory to God(매일 하나님께 영광을)”의 약자다. 하나님을 향한 차세대들의 열정을 잘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에서 찬양에 맞춰 춤추고 있는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

표현한 구호다. 교복을 입고 등장한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반주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표정에는 환희와 기쁨이 가득했다.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보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순찬양축제에 참석한 박태영 학생은 “이번 순찬양축제가 신앙을 돌아보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탁월하고 훌륭한 공연을 선보였지만 우승은 말춤공동체 출애굽다락방이 차지했다. 출애굽다락방은 복고풍 무대를 선보였다. 복고풍 스타일의 복장과 재치 있는 몸짓 하나하나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

았다. 그 멋진 공연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 선곡부터 MR제작까지 도맡았던 이형보, 정형순 성도 부부는 “순찬양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찬양을 대충할 수는 없어서 밤을 세워가며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의 주제는 ‘One Voice’였다. One Voice는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다. 그 주제와 의미처럼 이번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는 정말 황홀했다. 성도들 모두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보석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150:6).

사역칼럼



김병조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지난 11일 오후 5시 ‘One Voice’를 주제로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가 개최됐다. 순찬양축제는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행사 중 하나다. 순찬양축제를 준비하기 전에 강동 온누리교회 행사 준비팀은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강동 온누리교회는 순찬양축제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강동 온누리교회에 찬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기쁨

을 나누는 것에 소망을 갖고 계셨다.

질어가는 가을 저녁 드디어 강동 온누리교회 순찬양축제가 막 올랐다.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성인, 대학청년부, 차세대에서 12개 팀, 프라미스 연합과이어, 신새아 자매가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선보였다.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 만든 팀에서는 ‘하나님의 느낌’, ‘내 모습 이대로’를 찬양했다. 많은 회중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찬양이었다. 노방전도를 마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득 안고 돌아오신 어르신들이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을 부르셨을 때는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묵상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천 번을 불러도’, ‘오직 사랑에 매여’, ‘거룩

찬양의 열매

하신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을’, 일본 구전 찬양 ‘꽃들도’ 등 임재 넘치는 찬양이 분당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맛을 잃은 소금’, ‘Sing 주께 노래해’, ‘높이 계신 주께’ 등 대학청년부와 다락방 연합팀이 부른 찬양과 파워웨이브가 부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는 젊음의 활기와 열정이 가득했다.

모든 성도들이 순찬양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한 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 있었다. 그 벅찬 감격과 감동은 순찬양축제 내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순찬양축제는 장년과 청년, 청소년이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순찬양축제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발견했다. 우리의 찬양이 강동 온누리교회를 넘어 삶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과 함께 하는 찬양, 남과 북의 교회가 함께 하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열방에 울려 퍼져야 한다. 찬양을 통해 열방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한다. 나는 이 찬양의 열매가 온누리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일본 구전 찬양 ‘꽃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

“이 곳에 생명 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전문가 기고

“이 장면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한다!”

똑같은 일상을 다르게 보는 힘 ‘감사’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감사연구소(G.LAB)
대표)

“우와, 이 장면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한 교육 세미나에서 참가자가 창밖 풍경을 보면서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다. 그가 봤던 풍경은 스위스의 융프라우나 캐나다 로키산맥처럼 멋진 경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우리나라 가

을 경치였다. 그가 이토록 감탄했던 이유는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이맘때가 되어서야 다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필자는 그 순간 ‘감사란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다. 우리가 시야를 넓게 전환해서, 무심코 지나쳐 온 장면들을 1년에 단 한 번밖에 누릴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개인과 가정, 교회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고구마(음식)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눈앞에 맛있는 고구마가 놓여 있다. 추운 겨울에 딱 맞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다. 이 고구마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

1.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다.
2.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다.
3.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먹는다.

이밖에도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 며칠 아니 몇 끼를 굶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다. 배고픈 상태에서 맛보는 음식의 맛은 종류를 불문하고 먹는 사람의 장기(長期)기억에 남을 것이다.

필자의 아버지는 크림빵을 참 좋아하신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이었던 1960년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때 맛보았던 크림빵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빵이 많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때 드셨던 크림빵을 찾으신다. 그런걸 보면 사람이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음식을 먹느냐가 그 맛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상에서 똑같은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배고픔’이란 육적인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빗대어 말씀하셨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음식을 잘 먹었다는 영적 배부름을 경험할 사람은 “영적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을 감사(gratitude)의 상태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윌립 왓킨스 박사는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난 것과 이것이 외부의 대상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란 나에게 일상에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좋은 일이 외부의 대상에게서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인식), 마음으로 느끼고(인정),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표현)이다.”

감사를 잊어버린 상태는 우리의 일상에 매 순간 좋은 것을 주시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지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무감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영적 갈급한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7살 딸아이로부터 배운 ‘감사의 기적’

한 가족이 함께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다. 아빠는 이제 막 한글을 쓰기 시작한 막내딸과 초등학교에 곧 입학하는 7살 딸, 아내에게 감사 노트를 나눠주었다. 각자의 감사 일기를 매일 기록하기로 했다. 만약 가족 모두가 이 미션에 성공하면 원하는 선물을 주고, 온 가족이 케이크도 함께 자르는 파티를 열기로 약속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날의 감사한 것들을 적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감사 노트를 적은 지 2주 후, 큰딸이 자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기를 적지 않고 이면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아빠가 보게 되었다.

“너, 감사 일기 안 쓰면 파티도 못 하고 선물도 못 받는 거 알지?”

약간의 협박조로 말한 아빠에게 딸아이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파티 안 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딸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3장의 이면지에는 각각 아빠와 엄마, 동생이 그려져 있었고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이 옆에 함께 적혀 있었다. 그 감사의 범위는 하루 단위의 감사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각각의 대상에게서 받은 생애를 아우르는 감사의 제목들이 적혀져 있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그동안 씻겨 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맛있는 밥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과일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빠에게.”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맛있는 밥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저를 씻겨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에게.”

“주은아. 언니는 너가 태어나서 정말 좋아. 주은아 사랑해.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자.”

감사편지 3장을 쓴 딸은 그제야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빠는 그날의 마지막 감사 내용에 “아빠가 마사지를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서 물었다고 한다.

“아직 마사지 안 해줬는데...”

그러자 딸이 “이따 해줄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이 아빠는 2주 동안 감사 일기를 쓰면서 7세 딸아이로부터 두 가지 감사의 기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하나는 하루라는 시간을 넘어

선 일생(비록 7년이라는 짧은 일생이지만)에 대한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표현하고

매일 똑같은 모습인 가족, 회사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나. 사실 그 모든 순간은 딱 한 번밖에 누릴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 일생에 대한 감사로 확대되고, 삶의 본질로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그에 따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감사에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 열 명의 한 선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표현을 하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눅 17:17).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서로 받은 좋은 것들을 함께 인식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한다.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 인도네시아 성쿠(Sungku) 지역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고, 현지 교회가 새 힘을 얻었다!



고대선 코디네이터
(NGO 더멋진세상)

2018년은 유난히 재난소식이 많았다. 지난 7월 일본 오카야마 홍수피해를 시작으로 라오스 홍수, 필리핀 태풍, 인도네시아 롬복과 팔루지역 지진 등 지구촌 이웃들이 고통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줄을 이었다. 우리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NGO 더멋진세상의 섬김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지역은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더욱 안타까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도움을 제한하며, 정부 허가를 통한 단체나 현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에만 현장 접근을 허용한다는 입장표명을 함으로써 많은 구호단체들이 긴급구호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0월 초 지진 피해가 컸던 팔루(Palu) 시를 찾아갔다. 지진과 쓰나미로 무너진 현장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현지 필라델피아(Philadelphia)교회 목회자와 청년들의 협조로 팔라우(Palau)와 성쿠(Sungku) 지역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했다.

구호활동마저 힘든 상황

NGO 더멋진세상은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10월 4일 현장에 선 발대를 과전했다. 팔루공항 활주로가 파손되어 가까운 공항까지 최대한 이동해서 육로로 팔루 시에 어렵게 도착할 수 있었다. 지진피해와 쓰나미로 직격탄을 맞은 팔루 시는 무너진 건물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전기와 통신, 기름 공급이 중단된 채 마비상태로 방치되어



NGO 더멋진세상은 지진 쓰나미로 무너진 인도네시아 성쿠, 팔루 지역 7개 교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있었다. 일주일 가까이 물품 공급이 중단되자 주유소마다 차량과 오토바이의 긴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상가 건물은 식료품을 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습격으로 파괴되어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어렵게 재난 현장을 찾은 구호단체도 20시간 이상 떨어진 마카사르에서 물품을 구해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접근로는 지진과 산사태로 끊긴 곳이 있어서 운송도 어렵고, 오는 도중 다른 피해주민들에 의한 약탈 위험도 있었다. 열악한 접근성과 현지 물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구호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막막한 상황에서 현지 교회를 통해서 한줄기 가능성이 발견했다. 기독교 박해 지역임에도 팔루 시에는 현지 교회들이 눈에 띄었다. 교회들이 앞장서서 쉼터를 운영하고,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감사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교회협의회와 함께 구호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현지 교회와 함께

NGO 더멋진세상의 구호활동은 지난 10월 10일 인도네시아 팔루 시에 위치한 필라델피아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젊은 헤르만

토(Hermanto) 목사가 시무하는 필라델피아교회는 교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고 있었다. 지진과 쓰나미로 가족을 잃은 성도들도 있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팔루 시를 벗어나 아직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4시간 이상 달려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밤 10시가 넘는 시각에 돌아와 피해상황을 보고하는 교회 청년 줄리타(Julita)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귀한 열정이 있었다. 영문학과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재난으로 졸업도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쉼터를 섬기고 있었다.

줄리타 자매를 통해 접근한 팔라우(Palau) 마을은 팔루 시에서 북동쪽으로 130km 지점에 위치한 산악 마을이다. 247가구가 산에 흩어져 살고, 교회도 1개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 구호팀은 필라델피아교회 헤르만토 목사와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긴급구호팀을 구성해서 팔라우 마을에 식료품, 침구류, 생활필수품, 구급약 등을 전달했다. 산사태로 인해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안전하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마을의 유일한 교회인 베다니교회가 이번 지진으로 무너져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베다니교회에서 시무하는 데이시(Deisy) 목사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했다. 구호품 배분에도 적극 나서서 사랑을 실천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무너진 베다니교회 재건을 위해 복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차 구호활동은 팔루 시에서 남쪽으로 4시간 거리에 떨어진 성쿠(Sungku) 마을에서 진행했다. 필라델피아교회 헤르만토 목사와 청년들로 구성된 긴급구호팀이 주축이 되었다. 지진피해가 심각했지만 여전히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성쿠 마을 367가구에 쌀 1톤과 식용유, 설탕, 분유, 기저귀,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추가로 쌀 267톤과 임시거주 텐트 40개, 생활용품

을 전달했다. 성쿠 지역에는 현지 교회가 6개 있는데 3개는 완파되고 나머지는 부분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지진으로 교회 벽체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채 강대상과 교회 명패만 남아 있었다. 속히 이곳에도 도움의 손길이 확대되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현장에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진 교회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지역의 정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교회에서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조용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고, 현지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간증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Terima Kasih!(뜨리마 카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영국에 들어온 이후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영육으로 실감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믿음을 가졌던 영국 기독교인들마저도 영국의 실재를 모르고 있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안일함과 타협된 진리로 변질된 복음에 물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영국에 있는 무슬림이 300만, 힌두교인이 150만 명을 넘고 있

다. 500개가 넘는 런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슬림들에게 매대되어 모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의상, 걷는 모습과 행동, 직업까지 모든 부분이 남성스러운 중국인 자매를 영국에서 만났다. 내가 그 자매와 대화하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녀는 지성과 논리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곤 했다. 진리를 나누고 선포하며, 말씀을 통해 그 자매가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는 예수님을 새롭게 심어주었다. 계속 된 만남에서 딱딱했던 그 자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마음속 깊은 아픔을 진심의 눈물과 함께 쏟아내었다.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물로 도움을 구했다.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건강한 영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남자처럼 살아왔다

고 했다. 동성애에 잠깐 접근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드러내기를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영국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만민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 허향기 선교사(영국)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부 30주년 감사음악회 ‘또 하나의 열매’



지난 17일 열린 사랑부 창립 30주년 감사음악회 ‘또 하나의 열매’.

지난 30년 동안 사랑부(장애인에 배공동체)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담긴 찬양이 울려 퍼졌다.

지난 17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사랑부 창립 30주년 감사음악회 ‘또 하나의 열매’가 막 올랐다. 사랑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사랑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였다.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본부가 주최하고, 온누리 사랑챔버(이하 사랑챔버), 온사랑합

창단, 강동 사랑부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개그맨 표인봉의 사회와 나무엔(CCM음악가)의 연주는 사랑부 30주년 감사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사랑부 30주년 감사음악회는 장기근속 교사 감사패 수여, 온사랑합창단 노래, 강동 사랑부합창단 합창, 나무엔 특순, 사랑챔버 연주, 사랑챔버와 온사랑합창단 연합연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오늘 감사음악회는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은 사

랑으로 사랑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자리”라며 “이제는 사랑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박효양 성도는 “선생님, 부모님, 사랑부 아이들이 함께 만든 열매를 본 것 같아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했고, 김지연 교사(예수 사랑부)는 “사랑부 아이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창립예배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이 오는 12월 8일 오전 9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창립예배를 드린다. 창립예배 후에는 ‘제1회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예술상·예술장학금·의료후원수여식’이 진행된다. 작가 발굴 및 지원, 예술학도 학비 지원, 어린이 환자 수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은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통해 이 시대 문화를 어둠에서 빛으로 선도해 나가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역량 있는 작

가들을 발굴 및 육성 지원하고, 전시·교육·기부 등의 활동을 통해 소외된 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술적 달란트로 사회에 기여하고, 후학들에게 도움 되는 문화사역을 오랫동안 꿈꿔온 최인선 교수(홍익대 미술대학)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다.

최인선 대표는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문화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성북공동체 맞춤형도집회 ‘행복으로의 초대’

전도대상자 55명 참석 ...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길”

성북공동체가 지난 17일 오후 5시 ‘행복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맞춤형도집회를 개최했다. 초청자 55명이 참석했다.

성북공동체 맞춤형도집회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윤미의 연주, CCM 가수 김정석(그룹 빛과 소금)

의 찬양, 식사교제, 초청자 영상편지 상영, 신동식 목사의 말씀, 결신 및 화관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동식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설명하면서 “초청자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주민 대학생 위한 ‘캠퍼스 선교헌신예배’

2000선교본부와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 대학생들을 위한 집회 ‘캠퍼스 선교헌신예배’를 드린다. 내일(26일) 오후 7시 30분 중앙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외국어예배, 유학생 선교단체,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캠퍼스 선교헌신예배에는 이주민 사역, 유학생 사역에 관

심 있는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다. 민문기 장로(2000선교본부)는 “유학생 선교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귀한 사역”이라며 “이 귀한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대학 청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참석을 독려했다.

문의: 010-2959-0817

/ 김명선 기자

차세대 꿈땅, ‘2018 슈퍼북 예배’

차세대 꿈이자리라는땅(이하 꿈땅)과 CBN korea가 협력해서 ‘2018년 슈퍼북 예배’를 드린다. 오늘(25일)부터 12월 9일까지 3주 동안 매주 주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꿈땅 예배장소에서 1부(9시), 2부(11시 30분), 3부(1시 50분)로 나누어 진행된다.

슈퍼북 예배는 미국 CBN에서 제작한 3D 성경 애니메이션을 약 25분 동안 상영하고, 관련 활동을 차세대들에게 제시하는 성경 교육프로그램이다.

인천, 러시아어예배 준비 중

인천 온누리교회가 러시아어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내년 시작을 목표로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 제너렘 7층 건축상황실에서 ‘러시아어예배 준비를 위한 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러시아어예배 준비를 위한 기도모임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 등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다.

문의: 박창홍 전도사

010-2267-9531

상해 온누리교회, ‘2기 행복한 부부학교’

25가정 부부 50명 참석 ... “부정적 감정 회복”

상해 온누리교회에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2기 행복한 부부학교’가 진행됐다. 25가정 부부 50명이 참석해 부부간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상해 온누리교회 행복한 부부학교는 피플퍼플세미나, 부부 사랑, 부부 대화, 부부의 성, 자녀 교육, 성경적 가치관, 유언장 쓰기, 결혼 갱신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부부 사역팀원 18명이 강사와 스태프

로 섬겼다.

김태경, 엄소정 부부는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행복한 가정,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일구겠다”고 다짐했고, 여운호, 김재선 부부는 “행복한 부부학교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스테프 이남용 집사(상해 온누리교회)는 “이번 행복한 부부학교를 계기로 중국 전역의 모든 주재원 부부들에게 가정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열린새신자예배 봉사자 모집

새신자를 위한 열린새신자예배(주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안내팀, 예배지원팀, 디자인팀(주보 디자인), 영상미디어팀, 어린이예배팀, 찬양팀(싱어, 악기, 화이어), 중보기도팀, 새신자교육팀, 카페팀 등 9개 분야다. 봉사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열린새신자예배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성도는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special7pm@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김소리 목사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문의: 02-3215-3177

11월 세례자

■서빙고

김소연 611229
김지수 830614
박재진 760705
서정옥 460321
이재열 770216
이종찬 670603
정한수 551215
정혜정 821115
최은정 851010
한경희 710524

■양재

류석우 670125
박미소 900118
안혜성 830906
이정순 470110
유아 김리은 161210

이규현 171120
이승기 신재은 170821
이단열 김정아 171218
이지안 171218
이광열 김진아 170514
이하은 170514
이용규 전해영 170411
전준호 김현진 180716
최 수 180716
최수웅 오지희 161230
최 수웅 오지희

■양재

류석우 670125
박미소 900118
안혜성 830906
이정순 470110
유아 김리은 161210

김기역 박주은 170617
김재선 조혜연 160628
김권섭 김유리 170213
김하원 170213
김종호 이영경 170213
김종호 이영경 161207
문다넬 유미희 170322
박영준 김하나 170413
박익수 윤지선 170103
심성보 이윤애 171205
유재이 171205
유경재 윤수미 161217
윤병무 김수연 170304

이승민 이주영 170731
정재현 조혜진 171129
최성태 이정화 170518
함성현 170518
함진구 이정선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홍영은 900814
입교
윤진 850227
손영하 831025
허브
고지연 941202
손수빈 971204
입교
권준희 930118
박세연 941216

제1222호 | 2018년 11월 25일(주일)

■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여수민 성도(서울 남포교회)

더 나은 남편, 더 좋은 아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아빠들의 모임 ‘굿 파더’가 있다. ‘굿 파더’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굿 파더 멤버들은 학교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참여해보라는 권유를 굿 파더 회원인 친구에게 들었다. 나는 굳이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주 모범적인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활을 돌아봤더니 약간의 찝찝함이 느껴졌다. 아내와의 관계 문제였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자 아내의 말을 건성으로 듣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아내와 소통이 잘 안돼 종종 싸우는 일이 생겼다. 그때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자 아빠인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라고 생각했다. 아내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좋은 가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지원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첫 시간에 중요한 사실

을 깨달았다. 그동안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 이 행복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나와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바쁜 회사일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서로에 대한 대화 사라졌다. 아내가 나의 우선순위에 벗어나면서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됐다. 그게 바로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가장 큰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두 번째 시간에는 왕, 전사, 스승, 친구로서의 아버지에 대해 배우며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나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매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다. 축복기도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더라도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이다. 축복기도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윤희유 같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다. 앞으로 더 나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 유아세례 간증



/ 이광열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신실한 믿음은 없었다.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았다. 하나님이 점점 내 우선순위에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내와 결혼한 이후 조금씩 달라졌다. 주일에는 다른 것보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아내의 도움으로 모르던 말씀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으로 살았다.

결혼 초 우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냈다. 아내의 직장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하루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다. 우리 부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아이를 못 갖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자연임신을 포기하고 인공수정을 두 번이나 시도했다. 하지만 인공수정마저도 실패했다. 그때 아내가 내게 했던 말이 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

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나는 아내의 말을 새겨들지 않았다.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는 했지만 마음을 다해 부르짖지 않았다.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우리 부부는 낙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내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주님은 내가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부터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주님께 아이를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다. 주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고 계셨다. 마침내 작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우리 부부에게 그토록 바라던 2세를 안겨주셨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갖게 된 아이다. 우리 아이는 작년 12월에 태어나 이제 곧 돌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유아세례를 통해 지안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건강하길 소망한다. 지안이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키울 것이다.

■ 행복한 부부학교 수료 간증



/ 윤은익(대전 온누리교회)

행복충전소

우리 부부는 신혼이지만 신혼생활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둘 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양가에서는 나이 때문인지 새 식구가 될 사람을 훨씬 더 신경 써주셨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혼수, 예단 등의 문제로 양가 사이가 나빠지거나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하면 결혼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잡음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살림을 함쳐서 며칠 살아보니 연애 시절 그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남편은 분명 착한 사람이 맞는데 내 사람이 되고 보니 그 모습이 괜히 찝하고 가슴이 아팠다. 내가 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 생각하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게 포스터 하나를 주면서 한마디 내뱉었다.

“행복한 부부학교(이하 부부학교) 같이 하자.”

나는 남편이 준 포스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무슨 과정인지는 잘 몰라도 ‘몇 주에 한두 시간 강의 듣고 오는 거겠지’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부부학교는 8시간씩 5주 동안이나 진행되는 긴 과정이었다. 내가 그 사실

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부부학교 첫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부부학교에서 우리 부부는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받았다. 성격분석, 가계도를 통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상처와 결핍, 서로의 다른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 집에서는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때마다 말싸움을 하거나 이겨먹으려 했었던 것 같은데 부부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에는 그러지 않았다. 과거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기고, 강요했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절충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 기적적으로 나에게 “내가 이걸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지”하는 마음이 생겼다.

결혼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 결혼을 앞둔 친구들, 이제 막 사귀기를 시작한 이들에게 부부학교를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다.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학교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싶다. 왜냐하면 부부학교는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행복충전소이기 때문이다.

문의: 010-2022-2827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수료 간증



/ 이현숙 집사(강남B공동체)

진리와 생각을 붙잡는 훈련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는 나의 내면에 깊이 다뤄지지 않은 감정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이 영적인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했다. 그래서 나는 치료사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

강의를 들으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나눔이었다. 나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다. 나의 아픔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지 못했다. 나눔 시간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마음의 답답함을 혼자 꼭꼭 눌렀다. 나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스스로 고통을 인내하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다.

매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큰 은혜를 받았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둘씩 짚어가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내게 큰 감동으로 다가

오는 글귀가 있었다.

“인생을 바꿀만한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원한다면 이 책을 잡고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가계도를 그리는 시간에는 그동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감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의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조깅 만큼 예리하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정서의 아픔과 상처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정서적인 성숙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으로 살리는 영성’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면의 가시와 엉킴들을 맑은 물인 성령의 단비로 매일 씻어내야 한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의 단비를 구할 것이다.

장로칼럼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이광철 장로
(시드니 온누리교회)

지난 10월 25일 ‘Acts29 비전컨퍼런스’에 참석했다. Acts29 비전컨퍼런스는 해외에 있는 비전교회 목사님들과 비전위원, 그리고 한국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나

는 시드니 온누리교회 전현규 목사님과 함께 Acts29 비전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여러 해외 비전교회 목사님들과 비전위원들과 함께 부흥 축제에도 참여했다.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치리, 사명을 고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준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지난해 장로로 장립 된 이제 1년 차 새내기 장로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해왔지만 주님 앞에 서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세상에서는 나름 승진의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주 안에서서는 부족한 투성이었기에 장로 직분도 이제야 겨우 받았다. 동료들이 장로 은퇴를 하는 시기에 그것도 재수해서 장로가 되었다. 장로 장립도 정해진 날짜에 하지 못하고 2개월 이상을 미루다 해가 바뀌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4일 장립식을 치렀다. 나중 된 자보다 더 늦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니 나의 부족함과 겸손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함을 느꼈다. 적절한 때에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에 감격을 느낀다.

우여곡절 끝에 장로가 되었다. 나는 장로 서에서 약속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에 희생제물이 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한다. 장로라는 직분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장로가 되기 전 나는 아내와 약속했다. 교회에 누를 끼치거나 혹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나에게 맡겨진 장로라는 직분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퇴 정년을 5년 남겨 놓고 장로라는 직분을 허락하셨다. 아마도 짧고 굵게 신속하게 감당하라고 직분을 허락하신 것 같다. 나는 쉽 없이 열심히 기도하며 순종하고 싶다. 성도들을 권면하며 충성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온누리교회의 정신과 피가 내 몸에서 영원히 흐르도록, 나를 보고 자란 내 이들이 신앙을 잘 키워나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란다. 그래서 온 누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세워지길 소망한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일하는 장로,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는 장로, 교회의 영적 성장과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며 기도할 것이다.

한국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드니 온누리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첫째, 시드니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돼 가정, 교회, 일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둘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교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셋째,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세대와 타문화권을 세워가는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라는 이 외침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사칼럼

청년들과 함께 쓰는 사도행전 29장

허정은 권사
(SNS공동체)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입고 동트는 곳에서 끼꺼이 나아올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시 110:3).

대학청년부 멘토로 부름 받은 지 12년이 됐다. 작년까지는 Pole2공동체를 11년 동안 섬겼고 올해부터는 SNS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다. SNS공동체는 원유경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청년공동체다. 5년 전 8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약 1,700여 명의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영적 부흥을 이루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8개 청년부와 3개의 대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동체마다 돕는 자로서 10~20여 명의 멘토들이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화요성령집회, 홀리스타 새벽예배, 맞춤전도집회, 전국대학청년수련회, 여름 국내외 아웃리치, 단기선교사 파송 FA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주님은 나를 청년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부르셨다. 나는 이처럼 청년들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항상 은혜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독한 취업난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런 각박한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을 비껴가지 않는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 질병,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상

처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청년들은 예배 중에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거나 아파하기도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청년들에게 늘 선하시고, 성실하셨으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갖지 못하는 열정과 에너지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발견한다. 전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감동을 받곤 한다.

10여 년 전쯤 나는 주님이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꿈을 꾸 적이 있다. 지면상 그 내용을 다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이것이 온누리교회다”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꿈에서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기차 대합실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성도들은 일사분란하게 수많은 차량으로 연결된 기차를 타고 찬양을 하며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었고 주님은 그 모습을 매우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꿈을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온누리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가 건물이나 ‘성령의 운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기차’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 기차의 이름은 KTX도 새마을호도 아닌 ‘Acts29’였을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그 기차에 열심히 올라타서 가정과 직장에서, 부르신 선교의 영역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멘토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주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그들의 길에 빛이 되심으로 일평생 주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아멘!

신앙에세이

이재원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2018년 프로야구 코리아시리즈는 SK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야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1982년 시작된 프로야구는 2018년 들어 관중 879만 명이 경기장을 찾은 정도로 인

기 스포츠가 되었다. 한국에는 미국인 선교사 윌립 질레트가 1904년 최초로 야구를 도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야구를 봤을 때 야구의 매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 야구는 사람중심의 구기종목이다. 야구는 9명으로 편을 이룬 두 팀이 9회에 걸쳐 서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며 거기서 얻은 득

점으로 승패를 겨루는 구기종목이다.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격 축에서 1루, 2루, 3루를 돌아 다시 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점수를 얻지 못한다. 공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음을 일깨우셨던 예수님의 일갈처럼(막 2:27) 기술과 물질 중심의 시대에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을 야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 홈에서 출발하여 홈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어떠한가? 세상은 시작과 끝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현실을 구분한다. 생명의 탄생은 곧 죽음의 시작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하지만 야구는 다르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야구 경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이 땅에 나아왔지만 나그네임을 알고 본향을 찾는 기독교인의 모습(히 11:13~14)과 흡사하다.

둘째, 야구는 팀플레이다. 야구는 각자 역할이 분명하다. 선수 간의 실력 차와 인기도 면에

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포지션에 선수 1명씩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 간의 경중을 가릴 수 없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롬 8:28) 그 안에서의 협력이 곧 팀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공격 때도 마찬가지다. 좋은 안타를 칠 수도 있지만 팀의 득점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치는 ‘희생타’가 있다. 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기록을 포기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 결단과 야구의 희생타는 매우 비슷하다. 이것도 야구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셋째, 야구는 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야구는 9명의 타자에게 동일하게 최소 3번씩의 타격 기회가 주어진다. 9회 말 2아웃 상황이라든가 언제든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상대 팀과의 전력 차이가 크다고 해서 경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기회를 배푸

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타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고전 15:10).

기록에 따르면 야구(野球)의 한 경기에서 공이 움직이는 시간은 18분이고, 그 외 시간은 2시간 40분이라고 한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관중의 감탄을 자아내는 맛있는 플레이가 2시간 40분에서 탄생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돌판과 같은 현실에서 부르짖으며(野求)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야구(野球)를 통해 야구(野求)를 하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했을까? 바울의 기도대로 데살로니가교회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 응답하셨고,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이 보충되었습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 거룩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로 교회에 대해 갖기 쉬운 네 가지 통념을 깨뜨렸습니다.

첫째, 흔히 교회의 성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교회는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케도니아 대륙의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교회의 성숙은 아무런 고난이나 시련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는 가족과 사회관계로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교회는 건강하게 성숙해 갔습니다.

셋째, 교회가 성숙하려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교회에는 바울이 불과 3개월 남짓 밖에 체류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리더십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넷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통념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교회는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일대에 복음을 증거한 선교적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

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섬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섬김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기도한 내용을 가르쳤고, 모든 가르침은 기도로 정리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 목록에는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온 것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섬김, 권사님들의 지속적인 기도, 새벽기도와 순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온누리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환경이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시련 속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우리의 기도 속에 품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로 서로를 돕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기도의 섬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이들을 사용

하십니다.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가 교리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잘 밝혀지지 않은 것은 루터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힘은 루터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기간 중에 하루 2시간 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교리적인 정교함은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도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중심적 인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부르짖음이 있고, 광장에서 외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시대를 위한 기도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데살로니가교회 같은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믿음이 약하고, 방황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전쟁은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기도로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골방에서 중보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기도의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의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찬송가로 정리해 본 삶의 추억들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

10여 년 전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발을 들여놓자 국민일보(2008년 6월 14일자)의 부탁으로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라는 글을 쓴 적 있다. 그 일부를 다시 올리면, "내 기억에 예수를 처음 접한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드리던 가정예배였다. 마냥 나가 놀기에 바빠서 피곤한 다섯 살배기에게 저녁예배 시간은 졸리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도 우리가 월남할 준비를 마치고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밟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요' 보파리를 싸놓고 앞날을 기억하지 못하며 부른 찬송이다. 아마도 다섯 살 나이에 찬송가가 가사 중에 나오는 '만사형통'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내 기억에 더 남는 것 같다. 해방이 되고 공산당이 들어와 10여 년 함경도에서 일군 생활터전을 정리하고 38선을 넘기로 한 부모님은 이 찬송을

부르며 위로를 받으셨고 내내 우리 가정의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다. 다시 말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은 칠십 평생 나와 함께 해온 찬송가이다.

돌아켜보면 내 삶의 고비마다 찬송가가 있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있으랴'는 14 후퇴로 대전에서 피난생활을 할 때 벌집 단 칸방 이웃이 매일 부르던, 그러나 당시 우리가 죽한테는 생소했던 찬송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피난 시기를 놓친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조마조마 3개월을 버텨야 했다. 인민군 치하에서 여름을 지낸 두 형들은 9.28 수복과 함께 북진하는 미군을 따라 참전해 소식을 끊긴 채, 쿵쿵 다가오는 대포 소리를 뒤로 하고 철길을 따라 걷거나 지나가는 트럭도 얻어 타며 대전까지 내려갔다. 낮에는 산에 가서 팥감 나무를 구해오고 저녁에는 당시 가장 흔하고 값이 싼 고등어로 끼니를 때우고 그 이웃에 놀러 가는 것이 일과였다.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편잔을 들어도 그 집에 가면 매일 찬송이 있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직도 귀에 생생하고 내 삶의 일부가 된 찬송이다. 나는 어머니 40세에 막내로 태어났다. 지금은 돌아가신 큰형님과 90세가 다 되어가는 큰누님은 부모님 한창 나이 20대 초반에 태어났으니 부모님과 말뼌을 하며 자랐겠지만

나는 완전히 세대가 달랐다. 1991년, 24년간의 미국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니 나이 오십이 다 되었는데도 부모님의 삶과 생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하루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큰누님이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이라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퍼들었다. '어,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이 다 있었나? 나는 왜 몰랐지?' 그리고 보니 종래 20세기 초입에 태어나 백수를 넘기며 삶의 온갖 굴곡을 다 겪으신 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찬송은 없을 것 같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여기에 '형통'이 또 나온다.)

주말마다 안양으로 부모님을 찾아보면 이 찬송을 목청을 다해 3절까지 불렀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는 장모님 생전 처가 식구들이 모임 때마다 즐겨 부르던 찬송가다. 스물여섯 살에 장가가 처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찬송을 부를었다. 평북 선천에 사시던 장모님은 찢먹이인 내 처 하나만 데리고 한국전쟁 직전에 서울로 이주하셨다. 일가친척은 아무도 없는 남한 땅에서 둘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 어찌 외롭지 않았겠나. 20세기 초반 기독교를 받아들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장모님은 객지에서

얻은 다섯 자녀들을 웅기종기 한자리에 모아 놓고 가정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셨다.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생전 다시는 뱉지 못한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셨을 장모님이 생각나게 하는 찬송가다.

그리고 보니 내 추억 속 찬송가는 모두 가족사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내 지식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찬송이 뭐라고 할까? 아니면 아버지가 찬송가 부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할까? 부모의 찬송에 관해 미국유학 시절 내 가슴을 아리게 하는 뉴스를 읽었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동서 간 냉전이 한창이던 1972년 닉슨이 평양의교로 길이 튼 북한을 방문한 직후였던가. 험혈단신 월남해 당시 미국에 정착해 살던 한 이민자가 어렵사리 북한을 방문해 이미 연로하신 어머니를 만났다. 6.25 때 남하해 20여 년이 흘렀으니 노모의 눈에는 아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모가 말했다.

"그래, 예미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지 아니?" "그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들의 거침없는 대답에 노모가 "아이고 내 새끼"하고 일싸안고 통곡했다는 내용이었다. 생사를 모르던 모자가 몇 십 년 만에 철의 장막 넘어 북한 땅에서 상봉 해후하였다는 소식은 외로운 유학생의 가슴을 적셨다.

14 **온누리신론**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성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두란노 서빙고, 양재 서점 직원 모집

자격: 93년 이전 출생 형제 0명

문의: 서빙고(02-796-2310)

양재(02-573-4704)

두란노서원 고객서비스팀 채용 공고

모집: 정가구독센터 직원 1명

자격: 신입

마감: 12월 3일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 창조과학의 밤

일시: 12월 8일 오후 6시

내용: 창조신앙스쿨, 탐사 수료생 및 각 캠퍼스

창조과학선교팀원분들과 송년

모임

장소: 경찬홀(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문의: 각 캠퍼스 창조과학선교팀

010-4659-617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운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증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

CGNTV



예수님의
온기



예수님의 온기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



6편 <소셜미디어>편

방송 : 11/27 (화)

내레이션: 배우 심지호

소셜미디어 속에서 그림 목상과 어린이 찬송 영상,
청소년 고민상담 등으로 삶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7편 <광주 고려인마을>편

방송 : 12/4 (화)

내레이션: 배우 장광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나가는 고려인들.
이들의 정착을 도우며 나그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